

일.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지침들:

❖ **피해야 되는 것들 (빌 3:1-3)**

- 바울은 믿음을 해치는 위험들에 대해 경고하기 전에 “주님 안에서 기뻐하”(빌 3:1a)라고 말합니다.
- 그리고 당부하기를 우리에게 익숙한 진리라도 그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(빌 3:1b).
-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?
- 바울은 종교 의식법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야말로 그 당시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(빌 3:2). 바울은 이 거짓교사들을 개들(시 22:16; 벨후 2:21-22), 악행하는 자들, 그리고 할례로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.

❖ **뒤로 제쳐두고 떠나야 할 것들 (빌 3:4-6)**

-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사람들이 유대인의 의식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(행 15:19-21). 그러나 어떤 유대인 선생들이 빌립보에 와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(빌 3:2-3).
- 바울은 유대교사들처럼 과거에 얼마나 자신이 완벽하기 위해 애썼는 지 말해줍니다 (빌 3:4-6):
 - (1) 독실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, 팔일만에 할례 받고
 - (2) 벤자민 자손의 혈통으로 진짜 히브리인
 - (3)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던 바리새인
 - (4) 교회를 나서서 핍박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함.
 - (5) 흠잡을 데 없는 율법의 수호자
-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. 이제 그는 자신이 율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과 (마 5:21-22)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(빌 3:7).

❖ **가장 중요한 것 (빌 3:7-8)**

-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을 비교해 봅니다. 과거의 자신은 많은 지식을 알고, (유대교의 지도자)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미래가 보장되었고,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. 이러한 배경들은 그에게 이득이었습니다.
- 이제 바울은 저울의 다른 편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자신의 삶을 올려 놓습니다. 이 모든 이득들은 보잘것없이 되어 버립니다. 왜냐하면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(빌 3:7-8).
- 하늘과 새로운 세상에서 누릴 영원한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?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눈이 가려져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. 이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과 하늘이 소중히 여기는 것, 즉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영혼의 구원과 같은 가치관들은 자연히 서로 대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.

이. 구원에 남기위한 지침들:

❖ **그리스도의 믿음 (빌 3:9)**

- 자기가 의롭다는 확신에 찬 사울(바울의 옛이름)은 다마스커스로 가서 “도, 또는 길”이라고 불리는 이단 종파를 참 구원의 길로 회심시키려 했습니다 (행 9:1-2). 그런데 다마스커스에 도착한 사울은, 처음 경험하는 의,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압도당했습니다. “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”였습니다 (빌 3:9).
- 그 순간부터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믿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 애쓰는 행동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(갈 2:16).
- 그는 “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” 간절히 바랐습니다 (빌 3:9). 여기서 “발견된다”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
- 고린도전서 1 장 30 절에서는 “그리스도 안에 거한다”는 의미를 구원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, 다시 말해,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나 영적 지식에 눈을 뜨고,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과, 하늘 시민이 되기 위한 성화의 과정,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홀연히 변화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.

❖ **그리스도의 지식 (빌 3:10-16)**

-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(빌. 3:10-16)?
 - (1)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
 - (2)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
 - (3)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
 - (4) 우리가 영적 성장의 목표를 달성할 때
-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상경기와 같습니다.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. 우리는 이 세상을 즐기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. 우리는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는 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(빌 3:11).

- 그 때까지 우리는 “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(그분과 하나가 되는) 목적을 이루기 위해” (빌 3:12)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.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에게 상과,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도성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(히 11:10; 빌 3:14; 살전 4:17).